



16면

오용환 이사장이 말하는 '태권도의 날'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9월 1일 수요일 (음 7월 25일)

제285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내년 정부예산안 전북 몫 8조3120여억원

올해 반영액 7조5422억원에서 6.5% 증액

정부예산안 604조4000억원 규모 국무회의 통과
전북도 현안 반영 규모 신산업·새만금 등 931건

불리한 여건 속도·시군·정치권 협업 결실 맺어
중점사업 중 미반영 사업은 국회단계서 추가 확보

전북도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규모는 931건에 8조3120억원 정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7조5422억원 대비 4890억원(6.5%) 증가한 규모이며, 신규사업 2572억원, 계속사업 7조7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억원, 4824억원 증액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2면)

이번 정부안 단계 예산확보 과정은 계속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중앙부처 대면활동 제약, 기재부 예산실 핵심 라인에 전북 항우 부채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여건에도 막판까지 끈질긴 설득 및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과 함께 시·군 정치권과의 협력이 역대 정부예산안 최대 반영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일궈냈다는 평가다.

도는 100대 사업을 중심으로 실·국·장 행정·정무 등 양 부처사와 송하진 지사가 각각 역할 분담을 통해 부처단계부터 기재부 2차 심의까지 꾸준히 활동을 이어갔다.

지역 국회의원에게는 지역구별, 소관 상임위원 역할분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는 중점사업을 선정해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중앙부처, BH 등에 근무하는 항우 등 기재부 예산실 핵심라인과의 다양한 인맥과 채널을 통해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기재부 3차 심의를 앞두고, 선택과 집중으로 20대 중점사업을 추려 송하진 지사가 예산실장을 직접 만나 요청하는 등 진두지휘하면서 비교적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예산을 확보해 나갔다.

막판심의 기간 중에는 서울 반포 기재부 예산심의장 상주반(국가예산팀)과 도 지휘부가 핫라인으로 예산심의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송하진 지

사가 시의적절하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예산 카운트다운 소통했다.

또 익산 왕궁 현업축사 잔여부지 매입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막판까지 쟁점으로 예산반영이 불확실했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송하진 지사가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상대로 시트마감 직전 새벽까지 끈질긴 설득과 담판을 통해 해결했다.

국가예산 확보 여건 또한, 녹록치 않았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도 경제회복 및 안전망 확충 등 중앙정부 직접 수행사업 확대와 신규사업 연계 기조 등으로 지자체에 지원되는 재정 총량은 제한적이었다.

특히, 전북도 계속사업 중 올해 준공 연도 도래 또는 종료사업이 예년보다 많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같은 여건에도 역대 정부안 최대 반영과 함께, 정부안에서 이미 8조를 달성함으로써 2년 연속 8조원대 유지 기반을 확보했다.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막판까지 기재부를 설득함으로써, 신산업지도 구축 동력사업, 전북형 뉴딜 추진 가속화 등 부처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의미 있는 신규사업 다수 반영과 함께, 주요 현안사업을 대부분 정부안에 반영함에 따라 국회 단계 활동도 한결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다.

특히,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예산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 과 익산시장의 강력한 건의에도 심의 막바지까지 반영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송하진 지사의 시트 마감 직전 새벽까지 이어지는 2차관 및 예산실장 설득 작업으로 막판 국적으로 반영시키는 결과를 끌어냈다.

이에 10년간 끌어온 잔여 현업축사 전량 매입과 매입부지 생태복원을 매듭짓고, 새만금 수질개선과 함께 고질

적인 악취문제 해결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또한 막판 심의단계에서 새만금 국제공항(85.5~200억원), 새만금 신항만(863~1,262억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3,147~6,376억원) 등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증액사업으로써 새만금 내부 개발의 가속화와 물류 트라이포트 조기 구축에 청신호를 밝히는 등 규모와 내실면에서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한편 전북도는 중점사업 중 과소·미반영된 사업은 다시 한번 도와 시·군이 정치권과 함께 항우 국회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 중점사업 중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등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담을 수 없었던 사업은 부처와 긴밀히 협의, 조속히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국회 단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민간의 준비를 갖춘 방침이다.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등 타당성 용역 진행 중인 사업은 국회 단계 전까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 19 등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연된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 예타진행사업도 관련 데이터 자료 제공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단계에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예산안에 8조원 이상을 반영시키고, 막판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다수의 중점사업을 반영시키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정부예산안에서 미반영된 도 현안 사업들이 국회단계에서 증액되도록 시·군 및 정치권과 힘을 합쳐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



'거리두기 4단계 해제 전까지 단축 운영' 전주시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달 31일 완산구 중화상동에 위치한 대형 뷔페에 오후 3시까지 단축 운영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도, 6일부터 전 도민 90.3% 대상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서 12월 31일까지 사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지급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자체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α(맞벌이·1인가구 특례적용)이며, 전북도는 전체 도민의 90.3%(162만724명)이 해당되고, 총사업비는 부대비용을 포함해 4074억원이 투입된다.

소득수준은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져, 4인 가구 기준 의별이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는 35만원, 직장·지역 혼합가입자는 33만원이하면 지급대상이 되고, 2인 이상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인을 추가한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

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고액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 신청은 9월 6일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를 하게 되는데,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10월 29일에 마감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내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

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도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하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 대비해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이번 국민지원금이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